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10001

Phone : 646. 832. 7397

212. 736. 8500 (EXT 355, 384)

Website : <https://stfrancisnyc.org/>

Email: seoulosb@gmail.com

주임신부 : Brian J. Jordan, OFM

지도신부 : 이웅희 루카 (작은형제회 : 프란치스코회) luke0829ofm@gmail.com

전교수녀 : 안 마리루시 (투스캄포교베네딕도회서울수녀원) seoulosb@gmail.com

사목회장 : 장철순 스테파노 646. 322. 2139 stfrancis.cj@gmail.com

제1독서 | 이사 2,1-5

화답송 | 시편 98(97),1,2-3ㄴ,3ㄷㄹ-4,5-6(◎ 2 참조 또는 3ㄷㄹ)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
-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 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찬 성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
- 비파 타며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비파에 가락 맞춰 노래 불러라. 쇠 나팔 불 나팔 소리에 맞춰, 임금이신 주님 앞에서 찬성 올려라. ◎

제2독서 | 로마 10,9-18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 알렐루야.

복음 | 마태 28,16-20

영성체송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모든 민족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성가 | 입당 22 예물준비 250(220)
영성체 153(154) 파견 63

신앙고백: 사도신경

† 전능하신 천주 성부

◎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밀줄 부분에서 고개를 숙인다.)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미사 봉헌

연미사 지향

- 김예경 안젤라 Helene, Johansson
- 김정수 베드로 영혼을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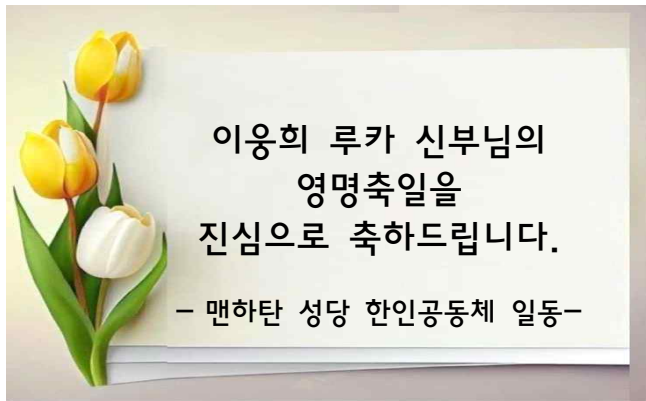
생미사 지향

- 이웅희 루카 신부님-영명축일
- Fr.이웅희 루카
- 한인공동체의 일치를 위하여
- 성소후원회의 은혜로운 피정을 위하여
- 문상민 안나의 빠른 쾌유
- 이웅희 루카 신부님 축일 축하
- 정다경 Maria 건강회복
- 이웅희 루카 신부님 축일 축하
- 한 케서린 벨라뎃다 영육 간의 건강
- 세상 자상하고 잘생기고 멋진 장철순 스테파노 삼촌의 생일 위하여
- 문성민 아나
- 김희진 엠마누엘라 생신 축하와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
- 강명옥 프란체스카 영육 건강과 빠른 회복을 위하여

날짜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	성체 분배	복사
10월 18일	장혜윤	정은철	류유리	정은철 류유리	이영혜 정다경	이예진 한서희
10월 25일	국민준	강호영	전푸름	강호영 전푸름	이영혜 진서윤	허우현 김수현

미사, 성사, 교리 안내	
주일 미사	오전 09:15 대성전
청년 미사	매달 둘째 토요일 오후 4:00 아래성당
고해 성사	08:30-08:50 아래성당 고해소
혼인 성사	면담 후 결정 *신청: Sr. 마리루시
유아 세례	면담 후 결정 *신청: Sr. 마리루시
봉 성 체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 Sr. 마리루시
예비신자 교리	일반인을 위한 교리 *신청: Sr. 마리루시
견진 교리	방문교리(환자/어르신)*신청: Sr. 마리루시

오늘 본당 행사(무료독감예방주사 접종)로
산 다미아노홀에서의 **친교 모임은 없습니다.**



재속프란치스코회 뉴욕 한국순교자형제회

(Monthly Meeting: Secular Franciscan Order of New York Korean Martyrs Fraternity)

일시: 매월 첫째 주일 12:00-5:00 PM.

장소: 아랫성당(Church of St. Francis of Assisi)

대상자: 지원자/ 입회자/ 유기서약자/ 종신서약자

문의: 718-344-9790 정기열 프란치스코

겨울철 무료 독감예방주사 접종(Free Flu Shot)

일시: 오늘, 10:20AM-2:00PM(주일미사 후)

장소: 산 다미아노홀

주최: "Linda" from Walgreens(pharmacy store)

준비물: 본인 ID or 의료보험증(소지한 사람의 경우)

문의: 646-832-7397 (Sr. 마리루시)

* 의료보험 소지하신 분들은 코로나와 폐렴 예방 접종도 가능합니다.

꾸리아 월례회 및 전 단원 교육

일시/장소: 오늘, 11:00AM 프란시스룸

강의 담당: 이윙희 루카 신부님

문의: 347-633-3767 (꾸리아 단장 윤 루시아)

2027년 부활 세례/견진성사 예비자 교리

2027년 부활성야에 세례/견진 받으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대상: 1)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예비신자)

2) 세례를 받은 사람 중 견진 희망자

(다른 성당에서 세례를 받은 분은 세례증명서 제출 필수)

모집기간: 2026년 10월 25일까지

교육기간: 2026년 9/13(진행 중)- 2027년 4/25(주일)

장소: 1:00PM-2:30PM, 프란시스룸(11/1 3층 회의실)

신청 방식: 신청서 신청/제출(seoulosb@gmail.com)

신청/문의: 646-832-7397 (Sr. 마리루시)

찬양기도회: '푸른 올리브'

함께 모여 노래로 하느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묵상하는 기도회입니다. 청년들과 함께 찬양과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주제: '내가 너와 함께 있다.'(이사 43,1-3)

일시/장소: 10월 24일(토), 4:00-5:30PM, 아래성당

문의: 646-832-7397 (Sr. 마리루시)

'세상을 떠난 모든 이들'을 위한 연미사 봉헌

11월 1일(주일) 미사 때 11월 2일(월) '위령의 날'을 대신하여 연미사 지향으로 세상을 떠난 모든 이들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이날 세상을 떠난 가족이나 친척, 지인 등의 사진(액자)을 가져오시면 미사 전 제대 앞에 두고 미사를 봉헌합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 바랍니다. 이날 연미사 봉헌을 희망하시는 분들도 신청 부탁드립니다.

* 연미사 당일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10월 31일(토)까지

문자신청: 646-832-7397 (Sr. 마리루시)

제16차 성장세미나(성령쇄신봉사회)

일시: 11/13(금) 1:00PM-11/15(주일) 5:00PM

장소: 뉴튼수도원 (289 US-206, Newton, NJ 07860)

참가비:\$320(식사/숙비 포함) + 교재비 별도\$20

대상: 기초성령세미나를 받은 분으로 영적 성장과 공동체 봉사를 원하시는 분

신청/문의: 917-929-4242(성령기도회장 민재인 데레사)

한인공동체 설립 30주년을 위한 묵주기도

지난 주(10/11): 620 단 총 집계: 620 단

주관: 맨하탄 한인공동체 꾸리아(Curia)

문의: 347-633-3767 (꾸리아 단장 윤 루시아)

오늘의 말씀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20)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주보

기부

✿ 신앙의 선조들을 찾아서

124위 복자 : 복자 김종한 안드레아

(? -1816)



김종한 안드레아는 충청도 면천 솔미 출신으로, 1814년 순교한 김진후 비오의 아들이며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작은할아버지다. 그는 부친이 박해로 옥고를 치르자 가족과 함께 경상도 영양 우련발(현, 경북 봉화군 재산면 갈산리)에 숨어 살면서 낮에는 천주교 서적을 필사하여 교우들에게 나누어 주고, 밤에는 신자들에게 교리를 가르쳤다. 을해박해 때 체포된 김 안드레아는 혹독한 문초에도 신앙을 증언하며 옥중에서 순교의 의지를 담은 편지를 남겼다. 그 중 형에게 남긴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저는 순교를 향해 나아가는 중이며, 감히 이 마지막 은혜를 바라기까지 합니다. 제가 만일 이 훌륭한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이후에는 어떻게 삼구(三仇; 영혼 구원의 세 가지 원수. 곧 육신, 세속, 마귀)에 대적해 나가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그것을 영영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천주님의 은총을 바라고, 다음으로는 여러 교우들의 기도를 믿습니다." 결국 지도층 신자로 지목된 김종한 안드레아는 1816년 12월 19일(음력 11월 1일) 가장 먼저 참수되어 순교했다. 이듬해 3월 친척과 교우들이 그의 유해를 거두어 안장했다.

성화_김형주 作, 「복자 윤치중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하느님의 종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6

*출처: <의정부주보>, No. 1205, 가해, 2026. 10.18.

투병 중이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4)

김택영알버트 이옥기수산나 이경희미카엘라
김동희헬레나 지군자스테파니 진정은마리아
박재호베네딕트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이병국요한

옥토

한중식 전문점

(646) 833-7864
1 E 33St. NY, NY 10016
(33가, 5애비뉴-매디슨 사이)
www.octo.nyc



WONJO

K BBQ since 1993

(212) 695-5815
23 W32St. NY, NY 10001
www.newwonjo.com



UDON Lab

Udon & Izakaya

(646) 838-5338
43W 32nd St. New York, NY 10001

www.udonlab.com @udonlab_nyc

더큰집

The Kunjip

(212) 564-8238
32 W 32St. NY, NY 10001
www.kunjip.nyc



Kim & Bob Shop

김밥, 비빔밥, 떡볶이 & More

배달 및 포장 전문, 케이터링 주문 환영

(929) 797-1212

826 9th Ave, New York, NY 10019

Between 54 & 55th Street

www.kimandbobshop.com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5 WINE & LIQUOR

린다김 데레사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 10AM-10PM / SUN: 12PM-9PM



마리아 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TEL. 212-594-7773, 646-808-7322

이민/부동산 (아오스덤)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CARGOZONE LOGISTICS INC

양서윤 플로라 | Flora Yang

marketing@czlusa.com

657-337-5130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917) 370-0394
krishap@nestseekers.com

Clear Laser CITY CLINIC

얼굴 리프팅 / 색소·미백·레이저

보톡스 / 필러 / 여드름 흉터

Tel 212-697-1802 Text 917-670-7801
501 5th Ave #1601, NY, NY 10017

PETIQUE SALON

DOG GROOMING · DAYCARE · BOARDING

Petiquesalon@gmail.com



강동호 베드로

917-419-7444

444 2nd Ave, New York, NY 10010

MIDTOWN SMILE DENTAL

hello@midtownsmiledental.com



임지수 마리아

(212) 532-8666

36 E 36th St. Suite 1K
(36가, 매디슨-파크 사이)

HAPPY HOME CARE

이지원 라파엘라

Registered Nurse

(347) 927-5635

happyhomecare.rn@gmail.com

1:1 맞춤 방문 간호

(투약·검진·돌봄)

happyhomecare.rn@gmail.com

happyhomecare.rn@gmail.com

happyhomecare.rn@gmail.com

happyhomecare.rn@gmail.com

happyhomecare.rn@gmail.com

happyhomecare.rn@gmail.com

happyhomecare.rn@gmail.com

happyhomecare.rn@gmail.com

happyhomecare.rn@gmail.com

happyhomecare.rn@gmail.com

happyhomecare.rn@gmail.com

happyhomecare.rn@gmail.com

happyhomecare.rn@gmail.com

happyhomecare.rn@gmail.com

다시 만난 신약 성경

“다른 복음은 있지도 않습니다”(갈라 1,7)

안소근 실비아 수녀(성도미니코 선교수녀회)

바오로 사도는 훌륭한 성인이지만, 함께 지내기에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과격하지요. 갈라티아서에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는 듯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서간을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서 여러분을 불러 주신 분을 여러분이 그토록 빨리 버리고 다른 복음으로 돌아서다니,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은 있지도 않습니다”(갈라 1,6-7). 타협의 여지가 없는 강한 어조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바오로 사도가 갈라티아에서 복음을 전한 다음, 다른 사람들이 와서 마치 바오로가 전한 복음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처럼 다른 내용을 첨가했습니다. 로마서 앞부분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믿음과 율법의 관계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로마서가 천천히 이론적으로 정리한 글이라면, 갈라티아서는 같은 주제에 대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개입한 편지인 셈이지요. “다른 복음”(갈라 1,6)은 구원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이방인이 그리스도교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때, 유대교의 율법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조금 주의를 기울여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오로는 유대인에게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 그 자체가 악하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이방인이 구원되기 위하여 율법 준수가 필요한가 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더 핵심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내가 의지할 구석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따른 행위에 의지하는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갈라 3,10). 여기에서 “의지”와 “저주”라는 단어가 크게 눈에 들어옵니다.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그의 마음이 주님에게서 떠나 있다”(예레 17,5). 다른 데에 의지하는 것의 문제는 하느님께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문어처럼 말이 여덟 개라면, 나는 어느 발에 의지하고 있는 것일까요? 율법을 지키거나 어떤 선행을 하거나 규정들을 지키는 것은 선택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나의 모든 것이 달려 있다고 생각할 때, 내가 이러한 것들을 실천하기 때문에 하느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갈라 2,16)이 흐려집니다. “율법을 통하여 의로움이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돌아가신 것입니다”(갈라 2,21). 의롭게 된 사람은 의로운 삶을 살겠지요.

그러나 바오로 사도가 맹렬히 반대하는 것은 내가 의롭게 살아서 구원되었다고 착각하는 위험입니다. 좋은 일들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의지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에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믿고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과격하게 율법을 지키기를 요구하거나 율법을 따르는 척하는(갈라 2,11-14) 태도를 거부합니다. 어중간하게 여기저기 의지하려는 시도를 배격합니다. 바오로 사도가 불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가 복음을 전한 이들이 “100%” 그리스도께서 베푸어 주시는 구원의 은총에 의지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 출처: <의정부주보>, No.1203, 2026, 가해, 2026. 10. 04.



* 출처: <서울주보>, 제2636호, 2026년 10월 18일

< 사막에서 하느님과의 함께 피정 >

- * 일시: 2026년 11/16(일) ~ 11/21(토)
- * 장소: Sacred Heart Retreat Center, Gallup, New Mexico
- * 피정 지도: 이 소피아 수녀
- * 협력사제: 김윤곤 아드리아노 신부님
- * 피정비: 700불(수익금 일체는 원주민 사목에 쓰임)
- * 문의: 이소피아 수녀.
Cell: 718-690-6093, sofiasfma@gmail.com

♠ 공항에서 피정의 집까지는 2시간 10분 거리입니다. 피정에 비행기로 오시는 분들은 가급적 시작하는 날 오후 2시까지 ABQ, NM 공항에 도착 부탁드립니다. 돌아가시는 비행기는 마치는 날 1시 이후로 비행기 표를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